

道, 대구 코로나19 환자 88명 수용

오늘 감염병전담병원 군산의료원 67명·남원의료원 21명 분산 이송

전북도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의 아픔을 함께 보듬기로 하고 도내 감염병전담병원인 환자 80여 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광역시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구 지역에서 자기격리 중인 확진자 88명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11일 군산의료원에 67명, 남원의료원에 21명 등 88명의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송될 예정이다.

도는 도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

로 코로나19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해 도내 지방의료원 3곳(군산·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말까지 병상을 모두 비운 상태다.

현재 의료진 보호를 위한 내부 공사까지 마무리해 환자를 수용할 준비를 마쳤다.

도는 확보된 감염병전담병원 3개소, 136병실, 223병상 중에서 50% 정도를 대구지역 환자 수용에 사용할 계획이며, 잔여병상은 도내 환자 발생에 대비해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군산·남원의료원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고, 안심병원으로 지정돼 호흡기질환 환자의 외래진료와 일반 외래진료는 계속 운영하고 있다. 다만, 입원 치료는 당분간 받을 수 없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대규모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의 아픔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전북도는 정부와 함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은 불안감을 내려놓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완쾌돼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공직자 '사랑의 헌혈' 운동 전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난 극복 위해 14개 시·군 동참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다.

이번 헌혈 행사는 10일 전북도청을 시작으로 5월 12일까지 14개 시·군이 동참하며,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한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의 혈액 보유량은 4월 1일분(2020년 3월 10일 0시 기준)으로 관심단계이며, 적정보유량인 5일분 이상 확보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설 연휴와 학교 방학 등의 이유로 연례적으로 혈액보유량이 감소하는

동절기인데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단체헌혈 취소, 외출 기피, 개학·개강 연기 등에 따른 헌혈 참여가 급감하면서 혈액수급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한다는 각오로 이번 헌혈행사를 준비한 만큼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기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형국)도 힘을 보탤다.

도청 공무원들의 헌혈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헌혈 참여직원에

게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이번 헌혈 행사는 공직자와 도민 등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와 체혈기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감염안전에 만전을 기해 진행된다.

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공직자들이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헌혈문화가 민간기업과 도민들에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대구·경북에 재해구호기금 2억원 긴급 지원

취약계층·의료진·일선근무자 등에 필요물품 지원



10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북도재해구호기금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식에 송하진 도지사,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구형보 복지여성보건의료장, 서영숙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우 공동모금회와 협의회 도내에서 생산하는 지역특산품과 연계토록 해 대구·경북지역을 돕는 동시에 도내 특산품도 홍보하는 계기로 삼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리우물산·클로바이오·리프이노베이션, 코로나19 방역물품 기부

3개 기업,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에 1천만원 상당 고병원성 살균제 500개 전달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주)리우물산과 (주)클로바이오, (주)리프이노베이션 3개 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에 1천만원 상당의 고병원성 살균제(손소독제) 500개를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리우물산(대표 정준우)은 김포시에 위치한 국내 및 해외 종합유통기업이며, (주)클로바이오는 경기 이천에 소재한 친환경 바이오테크 연구개발 기업, (주)리프이노베이션은 서울에 있는 온라인 전문 유통사다.

이들 기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경영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을 주고자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부된 1,000만원 상당의 고병원성 살균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262개소에 전달돼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쓰일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일본, 코로나19 국내 완치율 증가 예상

2월16일 신천지 마지막 예배일로부터 3주 지나... "3주 후 퇴원 이뤄지는 게 방역의 관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의 마지막 집단 감염일로부터 3주가 이미 지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들에 대해 증상이 호전되고 무증상 상태가 3주간 지속됐다면 퇴원해 신규 환자들이 원활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많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대구 신천지 신도들의 발생이 도화선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발생 자체가 2월16일"이라며 "퇴원 기준뿐만 아니라 격리 해제까지도 생각을 하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신천지 신도들 전체가 격리 해제까지 이르게 된다면 (완치) 비율 자체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확진 환자에 대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구분해 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증상자는 해열제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 간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에서 2회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된다. 단 임상 기준만 충족해도 퇴원은 가능하며 이 때 2회 음성이 나오거나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시설 격리를 거쳐 최종 격리 해제된다.

무증상 확진 환자는 확진 후 7일째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7일째 양성이면 이후 7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 실시)이면 격리 해제된다.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시설 격리 후 해제된다. 2월16일로부터 3주가 지난 건 지난 9일이다.

실제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달 5일 2번째 완치가 국내 최초로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이후 하루에서 사흘 사이 1~4명이었던 격리 해제 환자는 지난 3일 7명, 4일 47명, 5일 20명, 6일 10명, 7일 12명, 8일 36명, 9일 81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9일 오전 0시부터 자정까지 81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1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7513명 중 247명으로 아직 완치율이 3.3% 수준이다.

이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중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이르게 유행이 시작됐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지금 나라별로 완치자를 비교하는 것은 비교 타당성을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치명률이나 다른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지금 의학적 측면에서, 또 검사의 측면에서 WHO(세계보건기구)에 신고되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검사 규모나 신속성이 빠르다"며 "완치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퇴원 기준뿐만 아니라 격리 해제 기준까지도 발병일로부터 3주를 정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

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확진 환자가 너무 많아 분모가 커지면서 완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데다, 그 기준도 잠복기인 14일보다 긴 21일(3주)로 엄격해 완치 환자가 적다는 얘기다.

그러나 격리 해제 이후 양성 판정을 받는 등의 사례가 국내에서도 보고되자 일부에선 3주 이후에도 격리를 지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 호흡기 질병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 등에 따르면 잠복기는 0~24일로 3주보다 길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방역 당국은 현재로서는 3주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격리 해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감염된 상태에서 증상을 느끼지 못해 무증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퇴원 기준도 그렇고 격리 해제도 그렇고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각 시군구의 보건소, 또 시도의 즉각 대응팀, 또 저희 중앙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이 기준을 지켜서 시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한된 병상과 자원에 또 다른 신규 환자나 또는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관리, 조치 등이 문제없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고 그것이 코로나19 방역의 관건"이라며 "기준의 이행 그리고 이에 대한 협조를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